



모든 것은 내게 답 있어

정공 스님의 가르침

지 금부터 할 얘기는 율화세계의 주인공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일곱 살 때부터 아마타부처 명호를 외면서 자랐습니다. 아마타부처님은 증생을 구제하고 지상을 극락으로 만들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부처님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설령 아마타부처님을 만난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잠 눈을 뜨지 못하고 아마타부처님을 보아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과 몸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하는 일을 몸이 알지 못하고, 몸이 하는 일을 영혼이 알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불성(佛性)이 있습니다. 깨달음은 내 안의 불성이 우주의 근원과 연결되어 있고, 나의 불성과 부처님의 불성과 같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마치 잣나무의 씨앗이 잣나무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체라는 제한된 공간 때문에 그 불성을 발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부처님이 법당에만 계신 줄 압니다. 말로는 '사방 세계 어디에나 부처님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밟고 다니는 이 땅, 저기 있는 바위 모두가 부처인 줄은 모르는 것입니다. 한 발 떼면 미타국토요, 한 발 떼면 아마타국토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보살님 부처님을 찾으니 먼사 포를 쓴 어머니의 모습을 하고 나뉘는 것이지, 실제 삼라만상 두두물물이 다 부처님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부처님 따로, 하나님 따로, 지구 따로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땅을 보존하지 못하고 파괴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살고 싶어 분리되었을까요? 바로 분별심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구 자체도 의식의 집합체요, 부처님의 또 다른 모습임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지구 역시 깨달음을 향해 진화해 나가는 존재임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과 지구는 동반자고 한 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구를 생각하기를 내 몸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날 자연재앙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은 인간의 불성만 소중할 줄 알고 자연의 불성은 무시한 결과입니다.

이처럼 도(道)라는 것은 현실의 삶 속에서 진화해 가는 과정을 이야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삶 밖에 따로 있는 줄 압니다. 도인이 따로 있고 수행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나 개신교나 천주교나 종교의 가르침은 하나인 것처럼 말입니다. 특히 불

교는 틀이 없는 가르침입니다. 깨달음을 가르치는 것이 불교인데, 깨달음에 어떻게 틀이 있겠습니까? 깨달음이라는 것은 의식의 확장을 말합니다. 유정 무정에 모두 불성이 있습니다. 흙도 불도 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에 연결되어 있는 불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부처님은 '자등명법등명(自燈明法燈明)'의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다 불성이라는 등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을 켜지 않으니 암흑의 세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걸 켜기 위해 옴마니 반메홀 주력도 하고 염불도 하는 것입니다. 요즘 일부에서는 간화선이 아니면 사도(邪道)니 외도(外道)니 해서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자신의 수행법만 최고이고 수승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이 우주의 모자이크 한 조각일 뿐입니다. 부분으로 전체를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부처가 된다는 것은 곧 내가 부처임을 기억해내고 인식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 휴대폰 통화하려고 해도 주파수가 잘 맞게 하려고 자리를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하면서 애쓰잖아요? 그런데 왜 공부하는 그렇게 애써 하지 않습니까? 책도 안 읽고 공부도 하지 않는데 거저 이뤄지는 것은 없습니까. 우리는 이미 모두 도통(道通)입니다.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무지와 어둠으로 싸여 인정하려 들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자신이 부처임을 모르는 것이죠.

요즘 사람들은 물질만을 좇아 날이 갈수록 각박해집니다. 이 몸중이 '완전한 나' 인줄 압니다. 그래서 영혼이 아닌 몸을 위해 물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몸에 좋은 것을 찾습니다. 이 몸은 지구라는 무대에 연극을 하기 위해서 쓴 탈과 같은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곧 내 마음이 창조자라는 말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는 대로 이뤄집니다. 내가 현실을 창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안 된다는 관념, 어쩔 수 없다는 관념 때문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나에게 답이 있습니다. 내 영혼은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며, 모든 답을 다 가지고 있지요. 다만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지 못할 뿐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희망이 없는 시대' 라고 합니다. 하지만 내 자신의 불성을 깨닫는다면 왜 삶에 희망이 없겠습니까? 나 자신이 부처임을 인식하고 믿는다면 희망은 절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도를 구하는 자는 진정 자신의 불성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율화세계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모두인 것입니다. 정리=여수형 기자 · 사진=박재환 기자

18살 때 염불삼매 체험 건강 선사 만나 회두정진

정공 스님은 1920년 11월 19일 경북 성주군 용암면 구룡리에서 태어났다. 7세 때부터 '나무아미타불'을 염해 18세에 염불삼매를 체험했다. 성인이 된 후 선지식을 찾아 전국을 헤매던 스님은 29세때 해인사에서 전강 선사(田岡永信, 1898~1974)를 만나 본격적으로 불교 공부를 했다. 국성 태안사에서 비구계를 받았으며 전강 선사에 '이렇고' '판치생모(板齒生毛)' 회두를 받고 정진했으며, 전강 선사에게 '정공은 오후사(高後事)를 마쳤다'는 인가를 받기도 했다. 전강 선사 열반 후인 1975년 무주 원통사를 복원하고 장수 극락사를 창건했으며, 30여 년간 극락사에 주석하고 있다.

율화세계 주인공은 바로 우리 인간과 지구는 동반자며 한 몸 재앙은 자연의 불성 무시한 탓

우리는 흔히 부처님이 법당에만 계신 줄 압니다. 말로는 '사방 세계 어디에나 부처님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밟고 다니는 이 땅, 저기 있는 바위 모두가 부처인 줄은 모르는 것입니다. 한 발 떼면 미타국토요, 한 발 떼면 아마타국토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보살님 부처님을 찾으니 먼사 포를 쓴 어머니의 모습을 하고 나뉘는 것이지, 실제 삼라만상 두두물물이 다 부처님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부처님 따로, 하나님 따로, 지구 따로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땅을 보존하지 못하고 파괴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살고 싶어 분리되었을까요? 바로 분별심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구 자체도 의식의 집합체요, 부처님의 또 다른 모습임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지구 역시 깨달음을 향해 진화해 나가는 존재임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과 지구는 동반자고 한 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구를 생각하기를 내 몸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날 자연재앙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은 인간의 불성만 소중할 줄 알고 자연의 불성은 무시한 결과입니다. 이처럼 도(道)라는 것은 현실의 삶 속에서 진화해 가는 과정을 이야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삶 밖에 따로 있는 줄 압니다. 도인이 따로 있고 수행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나 개신교나 천주교나 종교의 가르침은 하나인 것처럼 말입니다. 특히 불

행복을 찾아주는 부처님 말씀 <78>



맑고 서늘한 열반으로 피서하기

숨 막히는 무더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찜통더위 속에서는 아무런 의욕도 나지 않습니다. 뭔가 계획을 세워 의욕적으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일어나지 않고 짜증만 날 뿐입니다.

더위는 또 그렇다 쳐도 소음과 매연으로 뒤덮인 도심에서는 맑은 대기, 청명한 하늘을 본지가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더위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종일 틀속에서 침병거리거나 시원한 나무 그늘에서 하루를 보내는 일일 것입니다. 이 무렵과 습하고 숨이 턱턱 막히는 곳을 떠나 맑고 서늘하고 청명한 바다가 부는 곳이 있다면 그곳으로 도망가고픈 심정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욕심과 성냄과 여러 식욕에 뒤덮여 고통치고 미워하고 시기하느라 하더라도 조용할 날이 없이 열병에 지글지글 끓고 있다면 이와는 정반대인 세상이 있습니다.

바가지, 교통체증에 지치는 휴가 열반이란 피서지로 떠나보세요 불법 실천은 완벽한 여름나기조

여섯 번째는 물에서 나온 뒤에는 머물고 머문 뒤에는 살펴보고 살펴본 뒤에는 건너가고 건너간 뒤에는 저쪽 언덕에 이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다섯 가지 실천 사항을 모두 닦아 익힌 뒤에 사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며 이로써 욕심과 성냄과 자기는 영원하다는 그릇된 견해와 계율이나 금지조항에 지나치게 얽매는 일과 의심이라는 다섯 가지 번뇌를 끊습니다. 성자의 세 번째 지위에 해당합니다.

일곱 번째는 물에서 나온 뒤에는 머물고 머문 뒤에는 살펴보고 살펴본 뒤에는 건너가고 건너간 뒤에는 저쪽 언덕에 이르며 이른 뒤에는 언덕에 머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다섯 가지 실천 사항을 모두 닦아 익힌 뒤에 사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며 이와 같이 알고 보았으므로 모든 번뇌에서 그 마음이 완전히 해탈하였습니다. 또한 자기가 해탈한 줄을 알고는 영원히 윤회에서 떠난 사람으로 성자의 네 번째 지위에 해당합니다. (중야합 수유경)

열두째는 물에서 나왔다가 다시 빠지는 사람입니다. 발자취만 언제나 잊지 말고 실천해야 할 다섯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 계율 지키기, 남에게 베풀기, 법문 많이 듣기, 지혜롭기입니다. 그런데 이 다섯 가지 사항을 두고 잊어버리는 했지만 견고하게 익히지 못하여 잃어버리는 사람이 바로 두 번째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는 물에서 나와 머무는 사람입니다. 앞의 다섯 가지 실천법을 잘 닦고 익혀서 수행

의 기본이 견고하게 잡힌 사람입니다. 네 번째는 물에서 나와 머물고 머문 뒤에는 살펴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다섯 가지 실천법을 완전히 몸에 익힌 뒤에는 그에 멈추지 않고 다시 현실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그리하여 괴로움, 괴로움의 집기, 괴로움의 소멸,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에 대하여 정확하게 압니다. 그리하면 덧없는 자기에 대한 집착과 계율에 얽매는 일과 의심이라는 세 가지 번뇌를 끊고 성자의 첫 번째 지위에 올라 괴로움을 없애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물에서 나와 머물고 머문 뒤에는 살펴보고 살펴본 뒤에는 건너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네 번째 사람의 경지를 모두 밟은 뒤에 한 걸음 더 나아가 탐욕과 성냄과 여러 식욕이 열어진 단계로서 성자의 두 번째 지위에 해당합니다.

여섯 번째는 물에서 나온 뒤에는 머물고 머문 뒤에는 살펴보고 살펴본 뒤에는 건너가고 건너간 뒤에는 저쪽 언덕에 이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다섯 가지 실천 사항을 모두 닦아 익힌 뒤에 사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며 이로써 욕심과 성냄과 자기는 영원하다는 그릇된 견해와 계율이나 금지조항에 지나치게 얽매는 일과 의심이라는 다섯 가지 번뇌를 끊습니다. 성자의 세 번째 지위에 해당합니다. 일곱 번째는 물에서 나온 뒤에는 머물고 머문 뒤에는 살펴보고 살펴본 뒤에는 건너가고 건너간 뒤에는 저쪽 언덕에 이르며 이른 뒤에는 언덕에 머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다섯 가지 실천 사항을 모두 닦아 익힌 뒤에 사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며 이와 같이 알고 보았으므로 모든 번뇌에서 그 마음이 완전히 해탈하였습니다. 또한 자기가 해탈한 줄을 알고는 영원히 윤회에서 떠난 사람으로 성자의 네 번째 지위에 해당합니다. (중야합 수유경)

열두째는 물에서 나왔다가 다시 빠지는 사람입니다. 발자취만 언제나 잊지 말고 실천해야 할 다섯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 계율 지키기, 남에게 베풀기, 법문 많이 듣기, 지혜롭기입니다. 그런데 이 다섯 가지 사항을 두고 잊어버리는 했지만 견고하게 익히지 못하여 잃어버리는 사람이 바로 두 번째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는 물에서 나와 머무는 사람입니다. 앞의 다섯 가지 실천법을 잘 닦고 익혀서 수행

의 기본이 견고하게 잡힌 사람입니다. 네 번째는 물에서 나와 머물고 머문 뒤에는 살펴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다섯 가지 실천법을 완전히 몸에 익힌 뒤에는 그에 멈추지 않고 다시 현실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그리하여 괴로움, 괴로움의 집기, 괴로움의 소멸,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에 대하여 정확하게 압니다. 그리하면 덧없는 자기에 대한 집착과 계율에 얽매는 일과 의심이라는 세 가지 번뇌를 끊고 성자의 첫 번째 지위에 올라 괴로움을 없애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물에서 나와 머물고 머문 뒤에는 살펴보고 살펴본 뒤에는 건너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네 번째 사람의 경지를 모두 밟은 뒤에 한 걸음 더 나아가 탐욕과 성냄과 여러 식욕이 열어진 단계로서 성자의 두 번째 지위에 해당합니다.

여섯 번째는 물에서 나온 뒤에는 머물고 머문 뒤에는 살펴보고 살펴본 뒤에는 건너가고 건너간 뒤에는 저쪽 언덕에 이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다섯 가지 실천 사항을 모두 닦아 익힌 뒤에 사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며 이로써 욕심과 성냄과 자기는 영원하다는 그릇된 견해와 계율이나 금지조항에 지나치게 얽매는 일과 의심이라는 다섯 가지 번뇌를 끊습니다. 성자의 세 번째 지위에 해당합니다.

일곱 번째는 물에서 나온 뒤에는 머물고 머문 뒤에는 살펴보고 살펴본 뒤에는 건너가고 건너간 뒤에는 저쪽 언덕에 이르며 이른 뒤에는 언덕에 머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다섯 가지 실천 사항을 모두 닦아 익힌 뒤에 사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며 이와 같이 알고 보았으므로 모든 번뇌에서 그 마음이 완전히 해탈하였습니다. 또한 자기가 해탈한 줄을 알고는 영원히 윤회에서 떠난 사람으로 성자의 네 번째 지위에 해당합니다. (중야합 수유경)

■ 이미지(동국대학교 역경연구원)

계룡산 대자암 보살계 수계산림 법회

대승보살계(大承菩薩戒) 십중대계(十重大戒)와 사십팔경구계(四十八輕拘戒)는 출가비구와 재가신도를 막론하고 다 같이 수지하여야 할 계법입니다. 계(戒)는 하늘을 오르는 사다리와 같고 바다를 건너는 배와 같으며 어둠을 밝히는 등불과 같고 계를 지키면 어두운 곳에서 불빛을 만남과 같고 가난한 이가 보배를 얻음 같고 병난 이가 쾌차함과 같고 감했던 죄수가 풀려남과 같고 멀리 지나간 이가 돌아옴과 같나이다 (범왕경)라고 하셨습니다. 금번 대자암에서는 아래와 같이 전계사 송광사 총림 방장 보성 대화상을 모시고 보살계 수계산림 법회를 봉행하오니 무루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 법회안내
 ▷ 보살계 수계법회: 윤달 음, 7월 25일 (양 9월 17일)
 ▷ 접수마감: 윤달 음, 7월 15일 (양 9월 17일)

계룡산 감사 대자암

공주시 계룡면 중장리 52번지
 전화 041)857-5880 / 팩스 041)857-5215

正宇 천연무공해 항토팡

스님들의 수행공간이나 요사채를 천연 순100% 항토팡으로 장엄하게 불사에 매진하고자 합니다.

정우 천연항토팡은 화학물질, 석회석, 시멘트, 본드 등 일체의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을 첨가하지 않은 순100% 천연항토팡만을 사용하며, 물에 나가거나 갈라짐, 깨어짐, 들뜸 현상이 없어 벽지나 장판을 사용하지 않아도 실생활에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순 100% 항토팡이 아니면 시공비 전액을 받지 않겠습니다.

고건축일련건축동기와 항토팡인테리어시공 전문
正宇文化財建築
정우천연항토팡산업
 대표 정우철 합장
 광주광역시 동구 윤림동 96번지
 전 화 062)226-4445
 팩 스 062)234-1286
 핸드폰 011-607-9828
 이메일 bestceo12@naver.com

수제화로 제작 滿 行 靴 化

상표등록: 614981호

■ 소재특징: 방수 극세사 원단, 논스립 미끄럼 방지, 특수 우레탄 소재

사계절 단화

지압식 깔창

- 가격: 80,000원
- 규격: 215-290mm
- 색상: 회색, 흑 (키높이 특수제작)

망사 단화

블록 슈창

- 가격: 60,000원
- 규격: 215-290mm
- 색상: 회색, 흑 (키높이 특수제작)

간장 슬리퍼

지압방문 슬리퍼(편)

침수백원단

개인별표시

극세사 방수원단

미끄럼방지 (논스립우레탄)

- 가격: 60,000원
- 규격: 225-285mm
- 색상: 회색, 흑

좋은 점

만행 포행시 단정함 유지, 색상에 따라 시부대중의 선택, 발 건강을 위한 3cm 굽 높이로 만들어져 발로 인한 몸 건강에 도움을 주며 특히 지압식 발바닥 깔창은 특수 항균 살리론 고무로 만들어져 불균의 예절에 절을 많이 하시는 시부대중의 발관리에 도움을 주는 특수 지압식 인솔입니다. 어떠한 신발에도 지압 인솔을 착용하시고 걷는 것만으로도 발바닥을 지압하여 운동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주문전화: 02)927-5715 / 011-9000-5715
 입금계좌: 농협 063-12-250427(구자민) * 보시 하실 분 상담 환영

전국매장
 • 부산: 원광사 051)636-7019 • 대구: 연꽃재상 053)426-7300
 • 광주: 불교서원 062)226-3056 / 화신승복 062)228-2870
 • 대전: 불교백화점 042)274-5727 • 서울: 부산승복 02)738-8407 • 제주: 김윤경승복 064)724-7999